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08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5월 25일 (음력 4월 11일) 금요일

## “서남권에 무안·새만금 2개 공항은 중복투자자”

정부가 서남권에 무안국제공항에 이어, 새만금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공항 이용권 중복 등 중복투자 문제점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선임연구위원과 양철수 책임연구위원, 신동훈 책임연구위원은 24일 <광전리더스 INRO> '새만금 신공항 추진에 따른 무안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의 추진 경위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무안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국토교통부

광주전남연구원 “공항 이용권 중복 등 공항정책에 역행”

“무안, 다양한 국제노선 발굴 등 경쟁력 강화 방안 필요”

통부는 새만금 항공수요조사 결과 2025년 67만 명, 2055년 133만 명으로 예측된다며 항공수요와 입지에 대한 상세 검토도 경제성 분석 등을 실시해 타당성이 있을 경우 공항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새만금 개

발사업을 촉진할 카드로 '신공항' 건설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2017년 전북도가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시급성을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진은 “무안국제공항은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새만금

공항 추진은 공항 이용권 중복 등 우리나라 공항정책에 역행하며 공항시설의 중복 투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지역도 무안국제공항의 영향권으로 잠재적인 항공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된다”면서 “서남권 내의 공항이용권 중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안국제공항에 다양한 국제노선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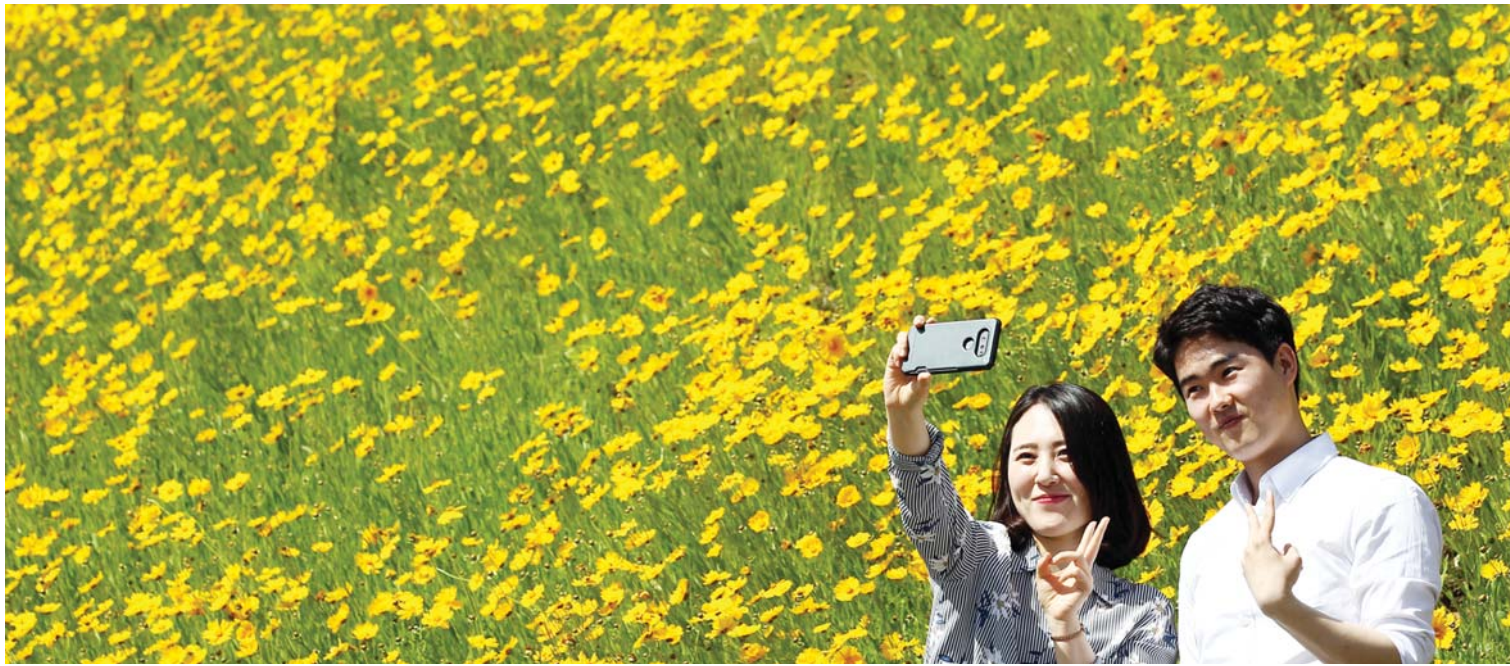
국토 서남권 내에 2개의 국제공항 준치에 따른 경쟁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무안국제공항의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고 대도시 주요공항, 도심 간 도로, 철도망 등 연결교통 체계 확충을 통한 이동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무안국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본, 중국 위주의 노선에서 탈피해 해외 주요 도시를 연계하는 정기·부정기 노선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동지역 국제노선 개발·확대 및 함께 국제선 연결 기능을 하는 무안 ↔ 인천, 무안 ↔ 김해 노선 신설 및 흑산공항 개항에 따른 무안 ↔ 흑산 노선 개설을 통한 무안국제공항의 허브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국제노선과 연계한 다양한 국내 항공노선 환승 체계 구축,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건설을 통한 수도권 및 내륙지역으로의 접근성 개선, 전남 동부권에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 교통망 조기 확충,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에 따른 역세권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 무안국제공항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이용객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여름을 부르는 금계국

24일 함평군 군립도서관에 열릴 '여름 코스모스' 라고도 불리는 국화과 꽃인 금계국이 황금빛 물결을 이루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함평=김광훈 기자

## 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추경서 1563억원 국비확보

전남도, T/F 중심 적극 홍보 펼쳐 대상자 빠짐없이 신청 계획

전남도는 확정된 정부 추경 가운데 목포와 영암 고용위기지역의 국고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대 1563억 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추경 확정 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과 조선, 자동차업종(협력 업체 포함) 지원사업에 총 1조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전남도가 정부 추경을 분석한 결과 목포·영암 지역 근로자·실직자 지원에 249

억 원, 지역 기업·협력업체 지원 247억 원,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활성화에 351억 원, 지역투자·관광인프라 지원 645억 원, 추가사업 예비비 71억 원 등 최대 40개 사업 1563억 원의 정부 지원이 예상된다.

분야별로 근로자·실직자 지원은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 확대, 희망근로 지원, 위기 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조선업 연관업종 재취업지원 등 11개 사업 249억 원이다.

지역기업·협력업체 지원은 경영안정자

금, 친환경산과 건조 시스템산업 거점기관 지원, 해양정비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조선산업 위기극복 지원, 선박설계 R&D 등 9개 사업 247억 원이다.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활성화는 특별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4개 사업 351억 원이다.

지역투자·관광·인프라 지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광산업 융자지원, 관광인프라 구축, 기간도로·여행도로·양식장 조성 등 15개 사업 645억 원이다.

전남도는 목포시·영암군, 목포고용노동지청 등으로 구성된 T/F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도 누리집에 정부 지원 안내 배너를 게시했고,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홍보 준비를 마쳤다.

6월 1일에는 영암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와 목포고용센터 별관 3층에서 근로자(실직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설명회를 열고,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안내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김병주 전남도 일자리정책실장은 “정부 추경 확정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원이 본격화됐다”며 “위기지역 내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청을 유도하고,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최대한의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포리부동

바른미래당 손학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송파를 국회의원재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손 위원장은 이날 유승민 공동대표와 만나 출마의 뜻을 직접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등은 이기는 후보를 전면에 내세워 손 위원장을 송파를 재선거 후보로 전략공천할 것을 주장해왔고 손 위원장은 이같은 제안을 고사해왔다. 손 위원장은 “박주선 공동대표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전화를 걸어 생각을 바꿔달라. 당을 위해 희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니를 버리고 희생하자는 생각으로, 유 공동대표를 만나 박 공동대표와 안 후보의 생각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송파에서 힘을 일으켜 달라고 해서 내가 니를 버리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공동대표는 반대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 자료사진=뉴스1



우리가 꿈꾸는 **내일**, 투표로 실현하세요

**6.13.**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가슴 두근거리는 그 날,  
투표하세요!  
유월의 따뜻한 햇볕같이  
우리 동네 민주주의는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6월 8일(금) ~ 6월 9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투표: 6월 1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